



## KIA 김민식 트레이드 효과 만점



김민식  
트레이드를 통해 SK에서 KIA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포수 김민식이 안정된 수비와 레이저 송구로 '호랑이 군단' 1위 질주의 중심에 섰다. <KIA 타이거즈 제공>

###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 1~2년차 유망주는 제외

오는 11월 시행되는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에서 1~2년 차 유망주들이 자동 보호된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18일 KBO 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2차 드래프트의 수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 결과 구단별 보호 선수는 40명으로 유지하되 유망주 보호를 위해 1~2년 차 선수(2016년 이후 입단한 소속 선수와 육성선수)는 지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군보류 선수는 지명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연차 구분 없이 소속 선수와 육성 선수만이 지명대상이 됐다. 또한 구단에서 지명, 영입할 수 있는 인원은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 지

명 순서도 홀수 라운드는 직전 시즌 성적의 역순, 짝수 라운드는 직전 시즌 성적순으로 하던 것을 각 라운드 모두 직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변경했다. 동률 시에는 전년도 성적의 하위팀이 우선 지명한다. 한편 2차 드래프트는 지난 2011년 출장 기회가 적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각 구단의 전력 강화를 위한 취지로 처음 마련됐으며, 2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이사회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분배금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패배팀에게도 분배금을 주기로 했다. 지난 시즌까지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패배 팀에게는 분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테임즈 5경기 연속 홈런

한국프로야구 KBO리그에서 성장한 에릭 테임즈(31·밀워키 브루어스)가 미국프로야구에서 5경기 연속 대포 소를 펼쳤다. 테임즈는 18일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 팀 시카고 컵스와 맞붙은 경기에서 2번 타자 1루수로 출전해 홈런 1개를 포함한 안타 3개를 치고 3번이나 홈을 밟았다. 2점 홈런 포함 3타점을 올린 주포 라이언 브라운과 테임즈가 밀워키의 6-3 승리를 이끌었다. 테임즈의 시즌 타율은 0.405(42타수 17안타)로 상승했다. 홈런 7개를 쳐 내셔널리그 이 부문 선두를 질주했고 타점을 12개로 늘렸다. /연합뉴스

### 공격적 리드·안정된 블로킹

### 투수들과의 호흡 좋고

### 도루 저지도 수준급



'김기태'의 트레이드 효과, 이번에는 안방이다. KIA는 지난 7일 개막 1주일 만에 SK와의 4대4 트레이드를 감행했다. 노수광·윤정우(이상 외야수), 이흥구·이성우(이상 포수)를 내어준 KIA는 포수 김민식, 외야수 이명기, 내야수 최정민·노관현을 받아왔다. 결과를 보면 원원 트레이드다. 노수광의 근성과 이흥구의 한방으로 SK는 연패에서 벗어나 연승을 달리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KIA도 10승에 선착하며 단독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매년 트레이드를 통해 부족한 전력을 채운 김기태 감독의 트레이드가 또 한 번 적중했다. 2015년에는 김광수의 재발견과 노수광이라는 수확이 있었다. 이해 5월 KIA 사령탑으로서의 첫 트레이드를 통해 김 감독은 한화로 좌완 임준섭·우완 박성호·좌타자 이종환을 보내고, 좌완 유창식·외야수 오준혁·노수광 그리고 베테랑 김광수를 영입했다. 핵심은 유창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광수와 노수광의 트레이드였다. 관심 밖에 있던 김광수는 이해 41경기서 4승 4패 9홀드를 기록하며 자신의 이름을 다시 알렸다. 지난해에도 2승 6패 7세이브 14홀드로 위기의 불펜에 힘이 됐다. 노수광도 근성 있는 플레이로 와일드카드 결정전 명승부의 중심에 섰다. 2016시즌에도 트레이드가 '가을 잔치'의 디딤돌이 됐다. 지난해 4월 6일 넥센에서 무조건 트레이드로 서동욱이 전직으로 돌아왔다.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서동욱은 멀티플레이어로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24경기에 나와 0.292의 타율을 기록한 그는 생애 첫 두 자릿수 홈런(16개)으로 67타점까지 수확했다. 집중력 있고 재치있는 플레이는 후배들에게 좋은 교본도 됐다. 이해 8월 1일에는 SK와 선발 자원이었던 임준혁과 좌완 고효준을 맞바꿨다. KIA는 좌완 기근을 해소했고, 고효준은 재기의 날개를 펴며 와일드카드 결정전 마운드에 오른 투수 중 한 명이 됐다. 2017시즌 트레이드도 대성공 조짐을 보인다.

김민식은 공격적인 리드와 안정된 블로킹 실력으로 투수들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송구 실력이 눈부시다. 16일까지 5번의 시동 중 4차례를 저지한 그는 오심이 없었더라면 100% 저지율을 기록할 수도 있었다. 18일 kt와의 경기에서도 1회부터 레이저 송구로 전수민을 잡아냈다. 매 경기 진담승을 거두고 있는 KIA에는 상대의 발을 묶는 김민식의 어깨가 큰 전력이다. 여기에 이명기도 낯선 우익수 자리에 적응하면서 지난 15일 3안타 경기를 펼치기도 했다. 고광한 선배에 이어 '민음'이 트레이드 효과를 극대화했다. 첫 우익수 선발 출전날 아찔할 포구 실책을 했던 이명기는 다음날에도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잡았다. 김민식도 꾸준하게 경기에 나서면서 공격에서도 힘을 보태고 있다. 트레이드로 날개를 단 KIA가 지난 가을보다 더 높은 무대를 올려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PGA, 봄은 오는가

### 우승 상금으로 생계비 대기도 빠듯... 선수들 외면을 대회 6개 늘리고 상금 114억...내일 시즌 개막

한국 남자 골프에도 봄이 오려나. 한국프로골프투어(KGT) 2017년 시즌 개막전 동부화재 프로미오픈이 오는 20일부터 나흘동안 경기도 포천 대유봉 베르 골프장 브랭팡·에페코스(파72)에서 열린다. 한국프로골프투어는 지난해까지 침체일로를 걸었다. 지난해 열린 대회는 고작 13개 뿐이었고 총상금 합계라야 95억원이 고작이었다. 상금왕 최진호(33)는 2승을 거뒀지만 받은 상금은 4억2392만원에 그쳤다. 작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상금왕 박성현(24)이 챙긴 13억3309만원의 3분의 1을 겨우 넘겼을 뿐이다. 선수 대부분은 생계비를 대기도 빠듯한 한국프로골프투어를 외면하고 미국, 일본 투어나 아시아 투어로 빠져나가 '스타 기근'도 심해졌다. 한국남자골프는 올해 중흥의 가치를 세웠다. 대회가 19개로 늘어났다. 2008년 20개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총상금도 144억5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상금이던 2011년 시즌 131억6000만원을 뛰어넘었다. 동부화재 프로미오픈은 남자 골프 부활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해외 투어에서 뛰는 한국 골프의 간판급 선수들은 아니라도 국내 무대 강호는 대부분 출전한다. 상금왕 2연패를 노리는 최진호는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최진호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3라운드에서 6타차 선두로 나선 끝에 여유 있게 우승했다. 최진호는 이번 시즌을 대비해 스윙과 장비를 모두 바꿨다. 유럽이나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국내에서 2승 이상을 올려 1인자 자리를 다지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준우승자 이창우(24)는 실력을 노린다. 이창우는 2013년 이 대회 정상에 올라 코스 공략에도 자신감이 넘친다. 작년 SK텔레콤오픈을 제패해 정상급 스타로 발돋움한 이상희(25)와 지난 시즌 2승을 챙긴 주흥철(36), 대구경북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올린 윤정호(26), 매치플레이 제왕 이상엽(23) 등이 개막전 우승을 탐낸다. 노장 모중경(46)과 문경준(35), 박재범(35), 이태희(33) 등도 개막전에 모습을 드러낸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더케이호텔컨벤션에서 열린 KPGA코리아투어 미디어데이에서 주요 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흥철, 김봉섭, 윤정호, 최진호, 이창우, 김태우, 김민호, 김남훈, 문경준, 김형태 선수. /연합뉴스

### 강정호 내달 25일 항소심...美 언론 "별금형 가능성"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항소심이 다음 달 말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정호의 항소심은 다음 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삼진 아웃제'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고, 지난 3월 법원에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이 거부돼 강정호는 미국으로 건너가지 못한 채 한국에서 혼자 훈련 중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강정호의 항소심 날짜가 다음 달 25일로 잡히면서 강정호의 비자발급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미국 현지에서도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피츠버그 지역 신문인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강정호는 항소심에서 어쩌면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다. 감형이 이뤄지면 미국 정부가 강정호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이어 "(메이저리그 공식 사이트인) MLB닷컴에 따르면 피츠버그 구단은 한국에서 훈련 중인 강정호를 위해 최근 피칭 머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연합뉴스

### 전국장애인양궁 3관왕 김홍필 MVP 수상

김홍필(53·광주시장애인양궁협회·사진)이 3개의 금빛 과녁을 명중시키며 '3관왕'에 오르며 대회 최우수선수(MVP)상까지 거머쥐었다. 김홍필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인천 계양아시아드 양궁장에서 열린 '제3회 현대홈쇼핑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에서 3차례나 시상대 맨 위에 오르며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대회는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해 치러졌다. 그는 대회 기간 중 열린 남자 컴파운드 개인전에서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동료들과 짝을 이뤄 출전한 남자 컴파운드 단체전, 컴파운드 혼성전에서도 금빛 과녁을 명



중시했다. 김란숙(여·50·광주시청)도 여자 리커브 개인전과 리커브 혼성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광주시장애인양궁협회는 이들의 선전에 힘입어 6개의 금메달을 비롯, 9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김지윤기자 dok2000@